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고사 (인문 사회) 연습문제 1회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Gerald Wilkinson, a biologist who returned to California in 1983 after conducting an investigation in Costa Rica*, reported some gruesome stories. The vampire bat* he studied in Costa Rica was hanging from an old tree during the day, and then, at night, he secretly visits the animals, puts a small incision in his skin and quietly sucks blood. However, even if they fail to find the right person or find the right person, they are often caught by their opponents and cannot suck their blood, so they often lead an unstable life. Experienced bats experience this misery for about a day every 10 days, but younger and inexperienced bats starve more often. A bat is in danger of starvation if it fails to eat blood for 60 hours.

Fortunately, however, bats can soak up more than a day's worth of blood and then vomit the surplus again and give it to other bats. There is a good solution, but from a bat's point of view, it is a dilemma. Bats that share extra blood are more beneficial than bats that do not. But bats that only get food but not give it benefit the most, and bats that only give but not receive the most.

Bats tend to live together in the same place, where they have a fairly long life span of more than eight years, so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repeat games with a particular opponent several times. Statistically, bats living in a place are not close relatives, so their generosity cannot be explained as kinship. Wilkinson thought bats were playing counter-match games. Bats that provided blood in the past are rewarded with blood from their opponents. The bat that did not give the rest of the blood does not get blood next time. Bats seem to adhere faithfully to the rule, and the act of mending each other's hair* is probably meant to enforce it. They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stomachs that store blood when grooming each other's feathers. For that reason, it is difficult not to be caught by other bats in a stomach bulging with predatory food. Bats who cheat are easily caught.

- * Costa Rica : 코스타리카 * vampire bat : 흡혈박쥐
- * mending ~ hair : 털손질 * bulging : 불룩해진

제시문 <나>

심리학적,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인간성의 가장 깊은 본질은 원초적 성격을 가진 본능적 충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이 가진 충동은 모두 비슷하며, 그 목적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 충동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충동이 인간 공동체의 욕구 및 요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는 충동과 그 발현을 선과 악으로 구분한다. 사회가 악이라고 비난하는 충동, 대표적으로 이기적인 충동과 잔인한 충동





들과 같은 것들은 이러한 원초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악한’ 본능을 변화시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요인, 즉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다. 내적 요인은 에로티시즘 —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사랑에 대한 욕망 — 이 악한(이기적인) 본능에 행사하는 영향력이다. ‘에로틱한’ 요소가 섞여들면, 이기적 본능은 ‘사회적’ 본능으로 바뀐다. 우리는 남에게 사랑 받는 것을 커다란 이익으로 평가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 받기 위해서라면 다른 이익은 기꺼이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 외적 요인은 가정교육이 행사하는 강박이다. 가정교육은 문화적 환경의 요구를 나타내며, 성장한 뒤에는 그 환경의 직접적인 압력이 계속해서 외적 요인을 이룬다. 문명은 본능의 만족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진 것이고 문명세계에 새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개인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외적 강박은 끊임없이 내적 강박으로 대체된다. 문명의 영향은 이기적인 경향에 에로틱한 요소를 첨가하여 그것을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경향으로 바꾸고 그런 변화는 계속 늘어난다. 결국 인간이 발달과정에서 느끼는 모든 내적 강박은 원래 — 즉 ‘인류의 역사’ 에서 보면 — 하나의 외적 요인에 불과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오늘날 태어나는 사람은 이기적 본능을 사회적 본능으로 바꾸는 경향을 어느 정도는 유전적 소질로 갖고 있다. 이러한 소질은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이기적 본능을 사회적 본능으로 바꾼다. 본능을 더 많이 변화시키는 것은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룩해야 하는 일이다. 이처럼 인간은 당면한 문화적 환경의 압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문화적 역사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제시문 <다>

연민은 우리가 고통 받는 자의 입장에 서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이 감정은 미개인에게는 형체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강렬하게 나타나고, 문명인에게는 그 윤곽이 선명하지만 미약하게 나타난다. 연민은 고통을 목격하는 동물이 스스로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물과 동일시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동일시하는 성향이 이성 지배하는 상태보다 자연 상태에서 훨씬 깊었으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기심을 날게 하는 것은 이성이다. 그리고 이성을 반추하는 것은 이기심을 강화시킨다.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여 자신을 흔들여놓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의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시켜준다. 미개인에게는 이러한 훌륭한 재능이 없다. 이성적이지도 현명하지도 못한 그는 바보스럽게도 항상 인간 본연의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연민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연민은 각 개체 안에 있는 자기애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종 전체가 보존될 수 있게 해 주는 감정인 것이다. 남이 고통 받는 모습을 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서서 도와주게 되는 것은 연민 때문이다. 자연의 상태에서는 연민이 법과 도덕과 미덕을 대신해주며, 이때에 아무도 연민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생존에 필요한 것을 다른 곳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한, 건장한 미개인이 약한 어린 아이나 노인이 어렵게 획득한 식량을 강탈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연민이다. “남이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 는 합리적이고 숭고한 정의의 원리 대신에, 그다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더 유용하다고 할 만한,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믿음에 기초한 또 다른 원리인 “타인의 불행을 되도록 적게 하여 너의 행복을 이룩하라” 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품게 하는 것이 연민이다.

요컨대 인간이 악을 행했을 때 느끼게 되는 혐오감의 근원은 교묘한 논리에서보다는 오히려 자연의 감정 속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교육의 여러 원칙과는 별개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성을 통해 덕을 얻는 것이 소크라테스나 그 부류 사람들의 덕택일지는 모르겠지만, 인류의 생존이 개인들의 추론에만 달려 있었다면 중으로서의 인간은 오래 전에 사라졌을 것이다.